

【 2026년 4/4분기 충남북부지역 기업경기전망 】

I. 조사개요

1. 조사기간: 2026. 8. 20.(목) ~ 2026. 9. 2.(수)
2. 조사대상: 관내(천안, 아산, 예산, 홍성) 제조업체 102개사
3. 조사방법: 홈페이지 게시, 실사, 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실시
4. 조사내용: 항목·업종별 경기전망과 지난분기 실적, 기타 경기전망관련 사항
5.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0 \leq BSI \leq 200$)
 - BSI지수 = $\{(\text{호전예상업체수} - \text{악화예상업체수}) \div \text{전체응답업체수}\} \times 100 + 100$
 -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이다.

II.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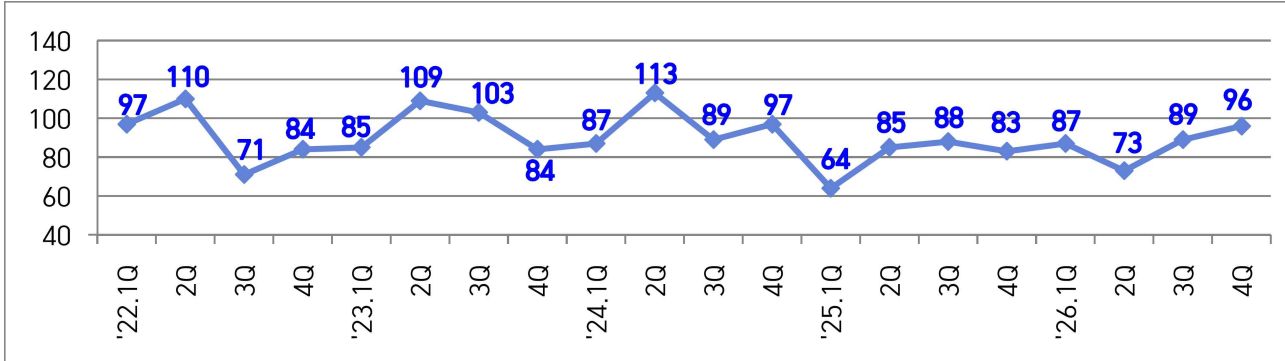
※ ‘기업경영의견조사’ 결과 전문은 5~7p에 수록

- ▶ “2026년 4/4분기 충남북부지역의 제조업경기전망지수(BSI)”는 직전 분기 ‘89’ 대비 7포인트 상승한 ‘96’으로, 두 분기 연속 개선되어 기준치(100)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됨.
- ▶ 이번 전망치 상승은 반도체 호조와 일부 업종의 주문 증가, 계절적 수요 확대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다만, 업종별 경기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비용·자금 부담도 지속되어, 지역 제조업 전반의 고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움.
- ▶ “항목별(매출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전망치”는 매출액(109), 영업이익(97), 설비투자(100), 자금사정(86)이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함. 다만, 영업이익과 자금사정은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해 매출 회복 기대가 수익성·유동성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전망치”의 경우 전기·전자(124), 화학(94), 식음료(88), 기타(100)가 상승한 반면, 자동차부품(47)과 기계·금속(94)은 하락함. 특히, 전기·전자는 20포인트 상승하고 자동차부품은 47포인트 하락하며 상반된 전망을 보였음.
- ▶ 경영의견조사에서 “올해 영업이익의 연간 목표 달성 전망”은 ‘목표 수준 달성’(42.2%)이 가장 많았으나, ‘목표 미달’ 응답의 합계(46.1%)가 ‘초과 달성’ 응답의 합계(11.7%)를 크게 웃돌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예상하는 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목표 달성의 긍정 요인으로는 ‘판매·수주 여건 개선’(60.8%)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37.3%)과 ‘판매·수주 여건 악화’(21.6%)가 꼽혀, 기업별 수주 여건의 차이와 생산비용 부담이 실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 “안정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적정 원·달러 환율”은 응답자 평균 ‘1,336.8’원으로 조사됨.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26.5%),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22.5%), ‘규제 완화’(17.6%), ‘지역 인력난 해소’(14.7%) 순으로 응답해, 경영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 확인됨.

Ⅲ. 조사결과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는 충남북부권(천안, 아산, 예산, 홍성) 10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4/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지수는 '96'**으로 조사되었음. (조사기간: 2026. 8. 20.(목) ~ 9. 2.(수))

【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전망치 분기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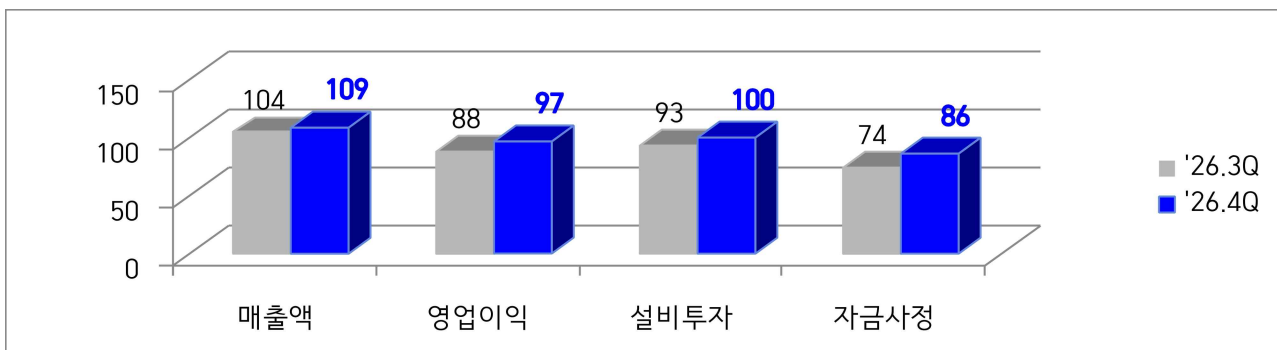


▶ “2026년 4분기 전망치(96)”는 직전 분기 전망치(89)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2분기 이후 두 분기 연속 개선되며 기준치(100)에 근접하였으며, 전국 평균 86 대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 반도체 호조 등 전기·전자·반도체 분야의 양호한 흐름과 함께 일부 업종의 주문 증가, 기존 수주분의 매출 반영, 계절적 수요 확대 기대 등이 경기 인식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기·전자·반도체 분야의 전망 개선과는 반대로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우 큰 폭의 전망 하락을 보이는 등 업종별 경기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부자재 비용과 자금 부담도 지속되고 있어, 이번 지수 상승은 지역 제조업 전반의 고른 회복보다는 주력산업과 일부 업종 중심의 개선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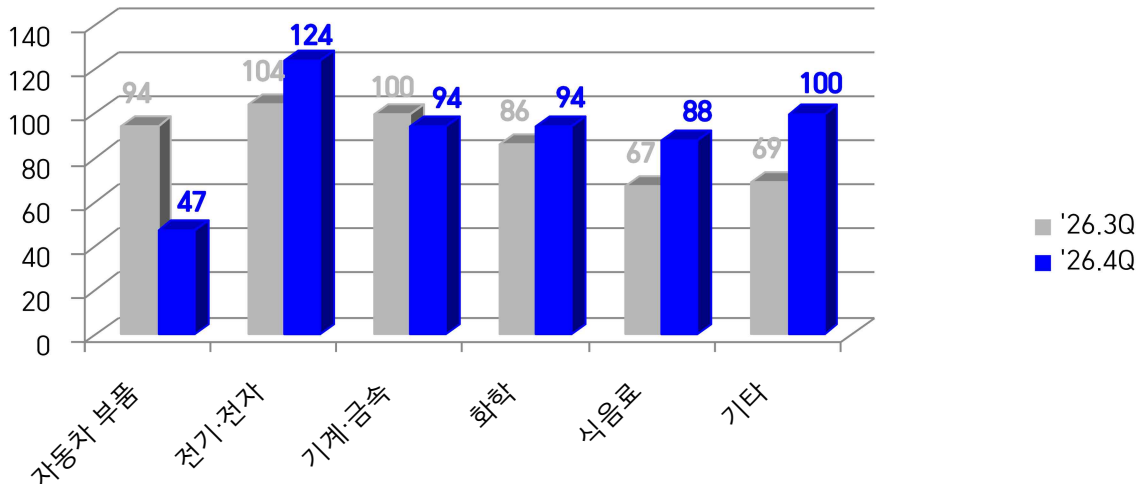
【 항목별 전망치 】



▶ “**항목별 전망치**”는 매출액(104→109), 영업이익(88→97), 설비투자(93→100), 자금사정(74→86) 항목이 모두 상승하였음.

⇒ 매출 증가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업이익과 설비투자 전망도 개선되면서 직전 분기보다 경영 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영업이익과 자금사정 항목은 여전히 기준치 이하로 매출 회복 기대에 비해 수익성·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됨.

【 업종별 전망치 】



▶ “2026년 4분기 업종별 전망치”의 경우, 자동차부품(47)과 기계·금속(94) 업종이 직전 분기 대비 전망치가 하락한 반면, 전기·전자(124), 화학(94), 식음료(88), 기타(100) 업종은 상승하였음. 특히,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 업종 전망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지역 주요 제조업 간 경기 인식의 차이가 확대됨.

▶ (자동차부품) 직전 분기 94에서 4분기 47로 47포인트 하락하며 조사 업종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기록함. 고객사 납품물량 감소 우려와 수주의 매출 반영 불확실성에 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매출과 수익성 개선 기대가 제한된 것으로 판단됨. 일부 수출기업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환산 매출 감소와 수출 채산성 저하 우려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임금교섭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객사 파업과 하계휴가 등에 따른 조업 감소가 부품업체의 납품에도 부담으로 작용함. 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납품·매출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그 여파가 4분기 경영 여건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전기·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일반 전자제품 포함

직전 분기 104에서 4분기 124로 20포인트 상승하며 조사 업종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으며, 반도체 수출 호조와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양호한 산업 여건이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생산·수주 기대를 뒷받침했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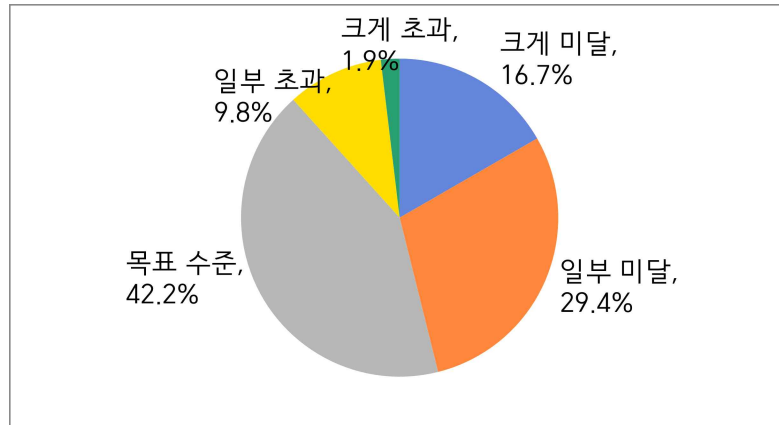
다만, 배터리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과 일부 고객사의 생산·주문 감소가 부담으로 남아 있으며, 금융비용에 따른 자금사정 경색도 경영 여건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세부 분야별·기업별 체감경기에는 차이가 존재함.

※ KDI는 ‘2026년 8월 경제전망’에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그 영향은 금년 중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 **(기계·금속)** 직전 분기 100에서 4분기 94로 6포인트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함. 고객사 투자·수주 증가와 기존 계약의 정산에 따른 매출 확대 기대가 있으나, 건설·철강 관련 수요 위축과 신규 수주 부진이 부담으로 작용함. 특히 3분기의 저조한 수주가 4분기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수주분의 매출 반영 기대에도 향후 일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 **(화학*)** *석유화학 제품 생산 업체 일부와 함께 화장품, 의약 등 생활화학 관련 업체가 주로 해당 직전 분기 86에서 4분기 94로 8포인트 상승하며 부정적 경기 인식이 완화됨. 일부 바이어의 주문 증가와 발주·생산 회복, 계절적 매출 확대 기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원·부자재 가격 부담과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매출 증가에도 이익 감소와 자금흐름 둔화가 나타나, 수익성 부담 속 제한적인 개선으로 해석됨.
- ▶ **(식음료)** 직전 분기 67에서 4분기 88로 21포인트 상승함. 일부 품목의 성수기 진입과 계절적 매출 증가, 환율·원재료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재료비 상승에 따른 이익 감소 우려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매출 개선 기대에도 수익성에 대한 신중한 전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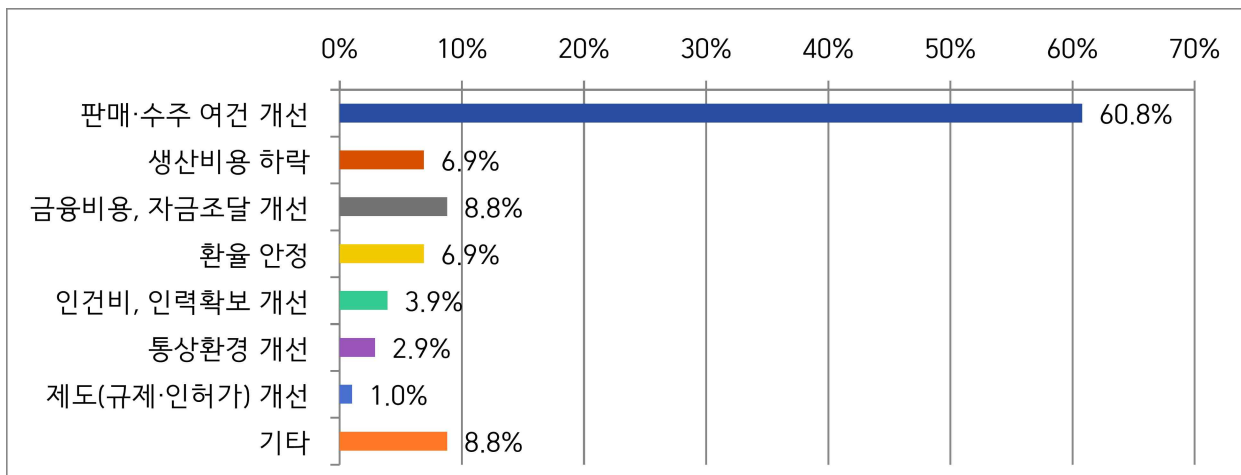
Ⅳ. 기업경영 의견조사 결과

1. 귀사의 올해 실적(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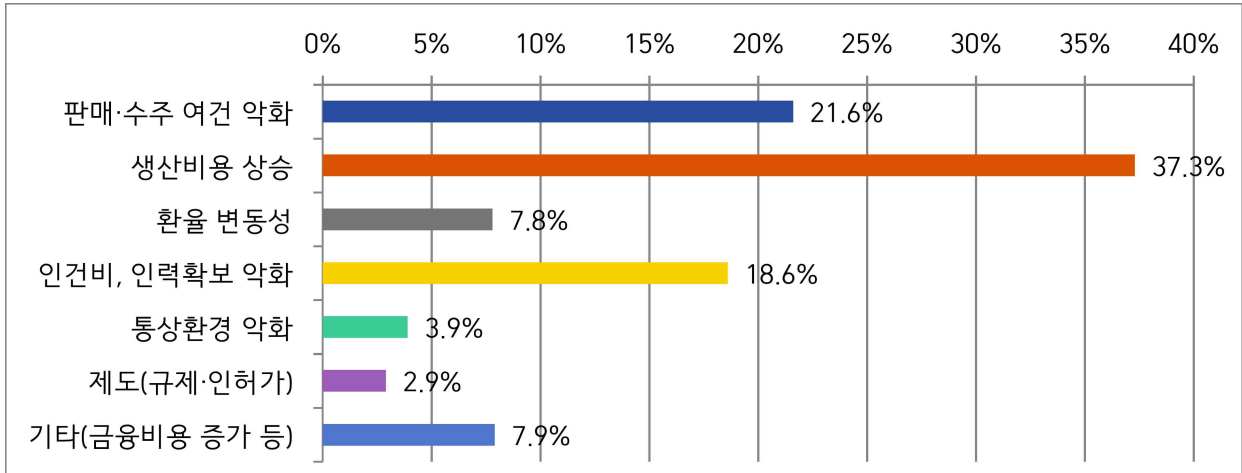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크게 미달	16.7
2	일부 미달(10% 이내)	29.4
3	목표 수준 달성	42.2
4	일부 초과 달성(10% 이내)	9.8
5	크게 초과 달성	1.9
합 계		100

1-1.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긍정 요인은 무엇입니까?



순번	보 기	비율(%)
1	판매·수주 여건 개선	60.8
2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	6.9
3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8.8
4	환율 안정	6.9
5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	3.9
6	통상환경 개선(공급망 안정, 관세 인하 등)	2.9
7	제도(규제·인허가) 개선	1.0
8	기타	8.8
합 계		100

1-2.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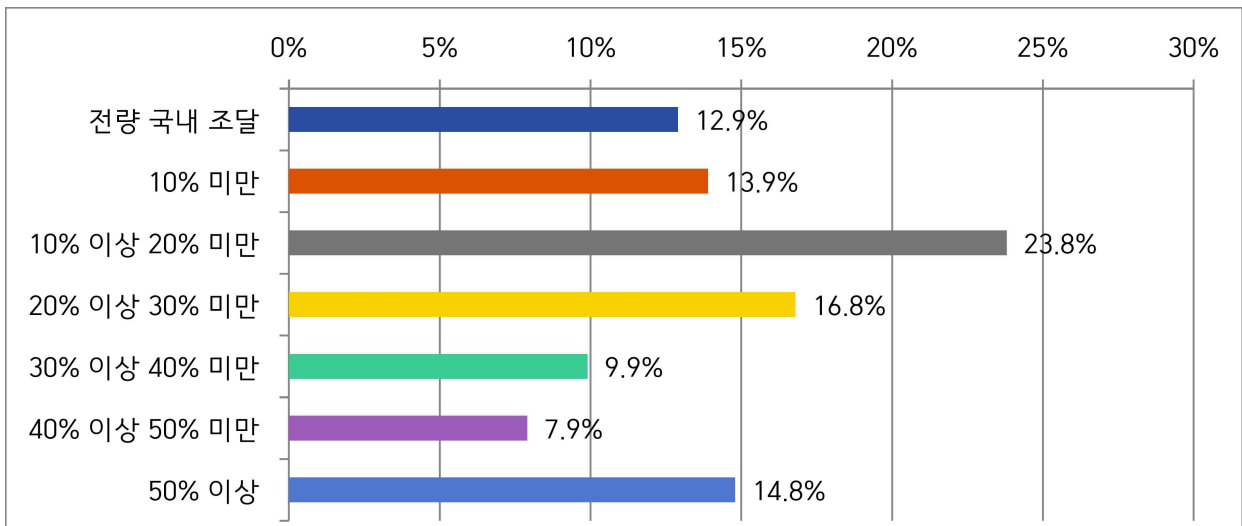


순번	보 기	비율(%)
1	판매·수주 여건 악화	21.6
2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	37.3
3	환율 변동성	7.8
4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	18.6
5	통상환경 악화(공급망 불안, 관세 등)	3.9
6	규제·인허가 등 제도	2.9
7	기타(금융비용 증가 등)	7.9
합 계		100

2. 귀사가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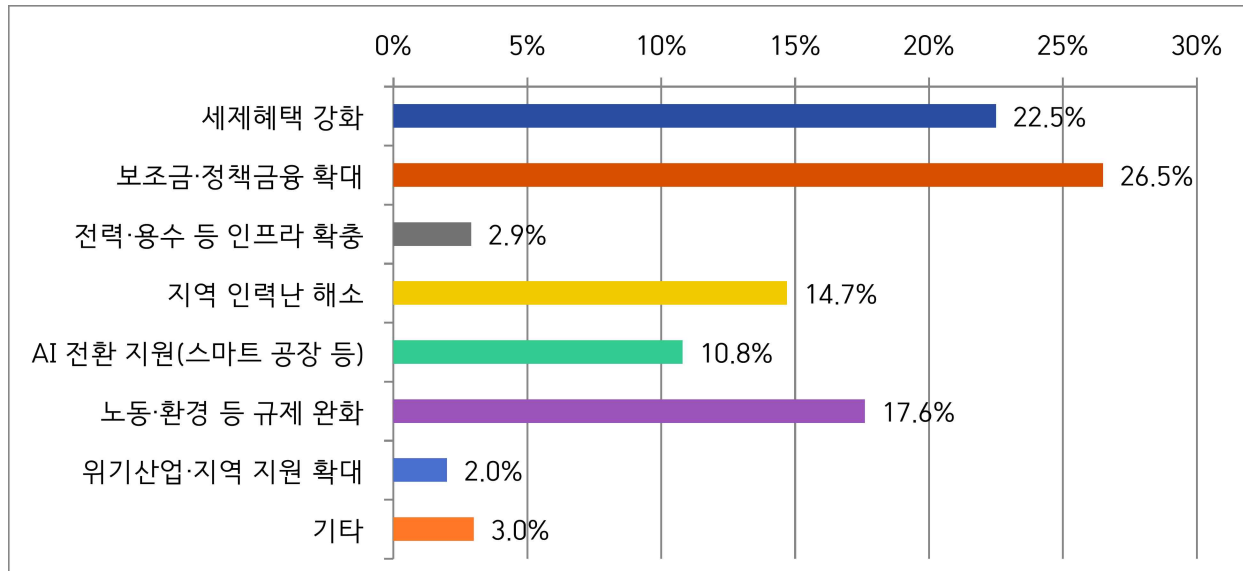
응답자 평균 ※ 상관 없음, 미응답 제외	1,336.8원
--------------------------------------	----------

3. 귀사의 수입 의존도(연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부품 구매비용의 비중)는 어느 정도입니까?



순번	보 기	비율(%)
1	없음(전량 국내 조달)	12.9
2	10% 미만	13.9
3	10% 이상 20% 미만	23.8
4	20% 이상 30% 미만	16.8
5	30% 이상 40% 미만	9.9
6	40% 이상 50% 미만	7.9
7	50% 이상	14.8
합 계		100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번	보 기	비율(%)
1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법인세 감면 등)	22.5
2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	26.5
3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전기·용수 등)	2.9
4	지역 인력난 해소(지역 대학 채용 연계, 외국인 노동자 등)	14.7
5	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스마트 공장 등)	10.8
6	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노동·환경 규제 등)	17.6
7	위기산업·지역 지원 확대	2.0
8	기타	3.0
합 계		100

2026년 4/4분기 제조업경기전망조사표

※조사목적상 추가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익명보장)? ①예 ②아니오

업체명			종업원 수	() 명			
주업종	① 반도체 ② 전자제품·통신 ③ 자동차·부품 ④ 기계·장비 ⑤ 철강 ⑥ 전기장비 ⑦ 조선·부품 ⑧ 배터리 ⑨ 정유·석유화학 ⑩ 제약·바이오 ⑪ 섬유·의류 ⑫ 식음료 ⑬ 화장품 ⑭ 기타()						
구 분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소기업		수출비중	① 수출기업(매출 50%이상) ② 내수기업(50%미만)			
지 역	① 서울 ② 인천 ③ 경기 ④ 대전 ⑤ 대구 ⑥ 울산 ⑦ 부산 ⑧ 광주 ⑨ 충북 ⑩ 충남 ⑪ 경북 ⑫ 경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강원 ⑯ 제주 ⑰ 세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회사 전화번호 :	
항 목		2026년 2분기 대비 2026년 3분기 실적		2026년 3분기 대비 2026년 4분기 전망			
1. 귀사의 체감경기		①호전 ②불변 ③악화		①호전 ②불변 ③악화			
※ 4분기 전망을 위와 같이 답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2. 매 출 액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3. 영 업 이 익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4. 설 비 투 자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5. 자 금 사 정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①증가 ②불변 ③감소			

6. 귀사의 올해 실적(영업이익)이 당초 계획했던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① 크게 미달 ② 일부 미달(10%이내) ③ 목표 수준 달성 ④ 일부 초과 달성(10%이내) ⑤ 크게 초과 달성

6-1.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긍정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 판매·수주 여건 개선 ②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하락 ③ 금융비용 감소 및 자금조달 여건 개선
④ 환율 안정 ⑤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원활한 인력 확보 ⑥ 통상환경 개선 (공급망 안정 관세 인하 등)
⑦ 제도(규제·인허가) 개선 ⑧ 기타(_____)

6-2. 올해 목표치 달성에 있어 현재 귀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판매·수주 여건 악화 ② 원자재·에너지 등 생산비용 상승 ③ 금융비용 증가 및 자금조달 애로
④ 환율 변동성 ⑤ 인건비 증가 및 인력 확보 애로 ⑥ 통상환경 악화 (공급망 불안, 관세 등)
⑦ 규제·인허가 등 제도 ⑧ 기타(_____)

7. 귀사가 안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원·달러 환율 수준은 얼마입니까?
적정 환율: (_____)원 ※ 참고: 원·달러 환율 1,397.70원 (8월 19일 15:30 종가 기준)

8. 귀사의 수입 의존도(연간 매출액에서 수입 원자재·부품 등 구매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없음 (전량 국내 조달) ② 10% 미만 ③ 10% 이상 20% 미만 ④ 20% 이상 30% 미만
⑤ 30% 이상 40% 미만 ⑥ 40% 이상 50% 미만 ⑦ 50% 이상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 소재 기업 세제혜택 강화 (법인세 감면 등) ② 지역 투자 보조금·정책금융 확대
③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 (전력·용수 등) ④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 대학 채용 연계, 외국인 노동자 등)
⑤ 지역 소재 기업 AI 전환 지원 (스마트공장 등) ⑥ 지역 소재 기업 대상 규제 완화 (노동·환경 규제 등)
⑦ 위기산업·지역 지원 확대 ⑧ 기타(_____)